

# 광주 경제부시장·산하기관 요직인사 공모... 인선 주목

### 효령노인타운·그린카진흥원본부장 등

### 윤장현 시장 후보기 시정 운영 시험대

민선 6기 반환점을 돈 광주시가 경제부시장과 산하기관 핵심 보직의 후임 인선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산하기관 요직 인사에 대해 윤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떤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임기 후반기 윤 시장의 인사와 시정 운영 방침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달 29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우범기 경제부시장의 후임 공모에 나서고, 앞서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2급)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할 광주 그린카진흥원도 조만간 본부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우 부시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중앙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며 예산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 부시장에 버금가는 역량있는 후임 인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제부시장 공모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뤄

지며, 다음달 4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복지재단은 문해욱 전 본부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2급)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그린카진흥원은 최근 노성경 본부장이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본부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노성경 전 본부장은 임명된 지 두 달도 안돼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옮겼다. 그린카진흥원 본부장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 지원 조직인 자동차산업협의회 회장도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두 전 본부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어 민선 6기 후반기에 들어서 측근 체제가 강화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윤장현 본부장의 파견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신임 본부장을 공모 중이다. 차기 경영본부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는 2004년 센터 설립 이후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으나 지난해 갑자기 외부 공모하기로 하면서 시장 측근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광주시와 센터는 논란이 일어난 뒤 코트라(KOTRA)에서 파견을 받아 본부장을 임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KEB하나銀·신한카드 무임교통카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12일 KEB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무임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무임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경로 우대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신한카드는 기존 장애인·유공자 복지카드에 무임교통기능을 추가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 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무임교통카드로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다만 버스는 국가유공자만 무료다.

광주시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무임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전국 공모, 사업설명회,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나은행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임승차 대상자의 일회용 승차권 발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면서 "지하철 업무 간소화와 우대권 분실로 인한 추가 제작 및 복합발매기 추가 설치 비용을 절감해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와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투자기업 초청 '기업인과의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투자기업 초청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동우전기(주) 등 11개업체와 투자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민선 6기 113개 기업 9711억 투자협약

### 58개 기업 2417억 실제투자자 이어져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113개 기업과 971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송배전 기자제 전문제조업체인 동우전기(주)와 상용차 부품업체인 주신기업(주), 신소재 연구개발업체인(주) 퓨리파라테크노 등 11개 기업과 총 62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2년여간 투자협약 한 기업 수는 113개, 규모는 9711억원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41개사(3235억원) ▲자동차 분야 25개사(2519억원) ▲가전 10개사(1150억원) ▲금속 및 기계 14개사(962억원) ▲의료 산업 6개사(260억원) ▲광산업 5개사(17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은 58개, 액수는 2417억원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상 실투자율 산출 근거가 되는 기업 수 기준으로는 51.3%, 액수 대비로는 24.9%를 기록했다.

투자협약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면 신규 일자리가 5813개 생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같은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해 6월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입지보조금을 분양가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보통신업종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대규모 투자 기업과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이날 투자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청년 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신보재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까

### 지난해 도입 후 검증 깐깐하게

### 후보자 2명 ... 이지사 선택 주목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광주전남연구원장 청문회를 거치면서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아진데다 청문회를 거듭하면서 도의회의원들의 검증 실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계연 전남신보 이사장 후임을 선별하기 위해 최근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1순위로 남모(55) 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 2순위로 김모(54) 전 광은비즈니스 대표이사를 후보자로 전남도에 추천했다.

남 이사는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등을 거쳐 현재 강원도의 영동

대 부총장으로 재직중인 비금융권 인사다. 반면 김 전 대표이사는 광주은행 여신지원부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을 거친 지역 금융계 출신이다.

전남도는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며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 추천인사 각각 2명, 전남도의회 추천인사 3명 등 7명의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비금융권 인사인 남씨가 전남신보 추천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프리미엄'을 얻어 1순위로 추천될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을 다루는 전남신보의 성격상 지금까지 금융권 종사자가 주로 이사장을 맡아왔다.

전남도는 이번 주안으로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오는 18일 전남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9일 전남도가 첫 도입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1년도 안 돼 돌연 사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새누리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선출 정족수 미달 무산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이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2일 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2016 정기 시장 대회'를 열었다.

심판부 전 위원장과 지난 총선에 출마한 정운 후보가 나섰지만 재적 대의원이 과반(21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시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 이후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당도 이날 오후 명옥재 해남·완도·진도 조직위원장과 임동오 전 중부대 총장이 후보로 출마

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대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도당 대의원 총 인원은 546명으로, 과반 수인 273명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이뤄지지만, 이날 참석 대의원은 144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 기간 연장과 중앙당 임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